부산 도심 밝힌 연등의 빛…부산연등회 봉행

4월 18일~27일, 부산 송상현광장 및 부산시민공원 일원

시민과 함께 부처님오신날 봉축
전통등 전시 등 프로그램 '다양'
산불 피해 희생자 추모 발원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주최한 '불기 2569년 부산연등회'가 4월 18일 개막점등식을 시작으로 26일 본행사까지 시민과 불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전통등 전시, 문화 공연, 체험 행사, 연등행렬 등으로 구성된 이번 연등회는 1300년 역사를 지닌 전통문화유산의 현대적 계승과 함께, 자비와 상생의 가치를 시민과 나누는 자리가 됐다.

연등회의 서막을 연 개막점등식은 4월 18일 송상현광장 특설무대에서 봉행됐다. 점등과 동시에 부산 도심은 자비의 등불로 밝아졌고, 무대에서는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의 공연과 '호기놀이' 전통 깃발 행진이 펼쳐졌다.

회장 정오 스님은 점등사에서 "연등회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우리 민족의 유서 깊은 문화유산으로,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되새기고 평화와 상생의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연등회의 밝은 불빛이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의 기운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어진 봉행사에서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삼광사 주지)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밝힌 등불은 우리 마음속 자성을 비추는 등불"이라며 "화합과 상생의 길이 등불을 통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역시 "부산연등회는 자비와 광명의 지혜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향기로운 축제"라고 소개했다.

이후 송상현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형 행사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전통등 전시를 관람하고 무차만발공양과 명상, 단주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문화를 직접 느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최한 '불기 2569년 부산연등회'가 4월 18일 개막점등식을 시작으로 26일 본행사까지 시민과 불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사진은 점등식 모습.

대단원의 막은 4월 26일 부산시민공원 일대에서 열린 본행사가 장식했다. 이날 행사는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연등회의 절정을 알렸다. 먼저 시민들과 사찰 신도회, 청소년 불자들이 참여한 연희단 경연 무대 '어울림 한마당'이 열려 사물놀이, 불교무용, 전통악기 공연 등 다채로운 전통예술 무대가 펼쳐졌다.

이어진 육법공양에서는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며 감사와 발원의 마음을 전했고, 관불의식에서는 참가 내빈들이 부처님 탄생을 기리며 아기 부처님의 몸을 목욕시키는 의례를 봉행했다. 이후 진행된 봉축대회에서는 지역 불자 대표들의 축원이 이어졌고, 회장 정오 스님은 "연등을 밝히는 마음 하나하나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연민의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연등행렬에서는 탑등, 용등, 연꽃등을 비롯해 수십 개의 대형 장엄등이 시민공원 일대와 광장 주변 거리를 따라 줄지어 갔고, 참가자들은 들고 있던 개인 연등에 불을 밝혀 행렬에 동참했다. 시민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연등의 물결을 담으며, 일상속에서 자비와 희망의 메시지를 만나는 뜻깊은 순간을 추억으로 남겼다.

삼보회, 고운사 화재 피해에 자비나눔

릴레이 성금 1000만원 전달

부산불교삼보회(회장 정분남, 이하 삼보회)가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자비나눔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삼보회는 4월 23일 고운사 및 화재 사찰을 직접 방문해 성금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성금은 화재 피해 소식이 전해진 후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부산불교삼보회는 각자의 원찰은 다르지만 매월 한 차례 108기도 순례를 함께하며 신심을 다지는 신행단체다. 이날도 불자들은 고운사 대웅전에서 합송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연대의 마음을 나눴다.

정분남 회장은 "화재 소식을 접하



고 단 일주일 만에 삼보회 불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1000만 원을 동참해 주었기에 고운사와 말사에 불사를 올릴 수 있었다"며 "이번 모금으로 다시 한번 삼보회의 단합된 마음에 감동했고, 불자님들이야말로 저의 큰 선지식임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고운사 총무국장 도륜 스님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절망스러웠던 시기, 부산에서 먼길 달려와 정성을 전해준 삼보회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일불교문화교류여성부, 무차만발공양

4월 20일, 송상현광장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도심 한복판에서 사찰음식을 나누는 특별한 자리가 열렸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는 4월 20일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제18회 '무차만발공양'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협의회는 시민 2000명에게 사찰 비빔밥을 공양하며 봉축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행사에는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명안 스님(여래종 사무총장), 삼륜 스님(삼론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승가 내빈과 백명숙 회장을 비롯한 여성부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공양 준비와 나눔에 정성을 더했다.

백명숙 회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시민들이 거리에서 사찰음식을 체험하고, 불교와 인연 맺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래구불교聯, 이웃돕기로 자비나눔

4월 21일, 동래구청서 전달
성금 400만원 · 쌀 20포 지원



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자관 스님, 자비암 주지)가 새로 지어진 부산 동래구청 청사에 봉축등을 밝히고, 자비나눔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사진〉

동래구불교연합회는 4월 21일 동래구청에서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및 성금·물품 전달식'을 봉행했다. 전달식에서 동래구불교연합회는 총 60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기탁했다. 성금 400만원은 무료급식소 움트리나눔센터(250만원)와 아름다운동행(150만원)에 전달됐으며, 백미 20kg 20포는 동래구노인복지관에 전달됐다. 동래구청 직원들을 위한 떡과 음료수 600여 개도 선물했다.

자관 스님은 "동래구불교연합회는 창립 이후 45년간 장학금 전달과 자비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며 "이번 동래구청 봉축 점등은 신축 청사에 처음으로 등불을 밝힌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1300여 년 전부터 이어온 연등회의 전통처럼, 불교는 언제나 자비의 등불을 밝혀왔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불교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나눔 실천을 위해 성금을 전달해 주신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성금은 무료 급식 등 복지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복지협, 새로운 도약 선언

4월 23일, 정기총회 개최
정여 대종사 회장 재추대



부산불교복지협의회(회장 정여 스님)가 4월 23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정기총회 및 회원기관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회'를 열고, 새로운 30년을 향한 도약의 출발을 알렸다.〈사진〉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열린 총회로, 정여 대종사가 만장일치로 회장에 재추대되어 협의회의 향후 비전과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는 협의회 수석부회장 정오 스님, 원광 스님, 석산 스님, 고담 스님을 비롯해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 불교복지 30년의 역사를 집대성한 기념집 발간이 공식화됐다. 협의회는 창립 이후 축적해 온 다양한 사업과 교육, 해외연수, 자료들을 정리해 체계적인 불교복지사(史)로 남긴다는 계획이다. 정여 대종사는 기념집 발간을 위해 5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정여 대종사는 취임사를 통해 "불교복지는 제도 안에서 정직하게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이며,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때 지속 가능하다"며 "부산 불교복지의 30년을 성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오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불교복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대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 소중함 기리는 '평안등 명상 법회'

산불 희생자와 뭇생명 위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와 홍법사는 4월 19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산불로 희생된 이들과 모든 생명을 위한 '평안등 명상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산불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이름 없이 사라진 생명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시간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비 실천의 마음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심산 스님은 "지난 3월, 우리나라



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상상할 수 없는 물질적, 문화적 피해를 입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함께한 인연을 생각하면 이처럼 마음을 나누는 일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 실천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 실 밀운부림
교구장 호산
어산어장 인묵 학장 정원

총무국장	보관	문화원장	성일
기획국장	향성	종책실장	덕산
교무국장	용안	문화국장	혜복
재무국장	성우	사회국장	법륜
포교국장	탄학	호법국장	현묵
전법국장	혜교	복지국장	혜각
연수국장	청효		
문화특보	혜공	사회특보	도심
정무특보	혜성	복지특보	무일/최종환
전법특보	묘수		



부
처
님
법
전
합
시
다

천년고찰, 부처님 법 전법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부평리) /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사무실 : 031-527-1951~2 / 팩스 : 031-527-8568 / 종무실 : 031-527-1956

봉선사 산하기관 학교법인 광동학원(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 연꽃유치원 / 사회복지법인 봉선복지재단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보호작업장 /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 / 남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구리 실버인력뱅크 / 구리 인창경로식당